

수련기간 5년! 연극의 합(합)을 펼치다

극공작소 마방진 <칼로막베스>

배우 이국호 & 이명행 & 조영규 & 호산

극공작소 마방진 창단 5주년 기념 출품작. 공연소개 헤드라인에 비장미(悲壯美)가 넘친다. 마치 <들소의 달>에서 '1968년의 불, 엄마는 두꺼운 화장을 하고 개장수와 떠났다'와 같은. 2005년 <모래여자>를 시작으로 창단한 극공작소 마방진이 올해로 창단 5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마리화나>, <강철왕>, <팔인>, <들소의 달>, <춘성> 등 말 그대로 재밌는 연극을 만들어왔던 연극작업의 방점을 찍는 공연,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공동제작 작품으로 올려진 <칼로막베스>의 출발은 여기부터다.



무지하게 싸워봐!

“범죄자들이 넘쳐나고 사형이 금지된 수백 년 후, 정부는 동해상에 인공섬을 만들어 높은 담을 쌓고 범죄자들에게 자유로운 삶을 허락한다는 미명으로 죄수들을 몰아넣는다. 수 세대를 거치면서 그곳은 자체의 도시국가 시스템이 된다. 조직들 간의 이권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그 야생의 땅에 막베스라는 충성심 강한 조직원이 있다. 그러나 그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변한다. 순종하던 그에게 탐욕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칼로막베스>의 배경은 미래 어느 곳 갈싸움이 난무하는 무림강초다.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이렇게 마음대로 변형해도 괜찮을까, 고전이 가지고 있는 정형화 돼 있는 시선을 이렇게 해체해도 될까, 하는 의문, 그것은 잠시 접어두자. 형식은 다르지만, 그 어떤 작품보다 원작에 충실한 <맥베스>가 펼쳐졌기 때문이다.

최윤우 셰익스피어 작품, 그것도 4대 비극이라고 여겨지는 <맥베스>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작품을 현대적으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건 인물을 바꾸거나, 관점을 바꾸는 건데 이번 작품은 원작에 굉장히 충실했던 작품이잖아요. 대본 처음 받고 어땠어요?

호산 솔직히 처음 대본 받았을 때 정말 재미없었어요. 원작하고 너무 똑같았거든요. 그대로 대본에 수용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마방진의 맥베스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연출님은 작업을 하면서 바꾸는 것을 알고 있지만요. 그런데 배우의 입장에서 이번 공연과정만큼 많이 웃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조영규 사실 <맥베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밀쳐야 본전이잖아요. 아무리 잘 해봐야 셰익스피어 작품이 가진 정형된 시선이 있으니까. 지금 얘기한대로 하는 내내 정말 재밌었거든요. 공연 초반에는 2시간 15분까지 나왔는데, 목표는 2시간 안에 마무리 하는 거였어요. 계속된 과정에서 털어낼 거 털어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음, 컨디션이 좀 좋으면 1시간 57분, 조금 늘어진다면 2시간 5분? 결국 2시간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제 생각에는 극단의 성향대로 잘 맞춰져서 지루하지 않게 보였던 것 같아요.

최윤우 커튼콜을 보고 나왔는데도 한 2시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빨리 끝난 거죠?

호산 네, 빨리 끝내고 술 먹으러 갈려고요. 하하하. 사실은 무대세트도 와서 세우고, 연습실과는 다른 현장 상황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첫날은 무대 동선에 적응하는 것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길어진 게 있었어요. 리허설 시간이라도 좀 여유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변명? 비겁한 변명이죠. 하하하.

최윤우 5~6개월 정도 연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액션 장면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술감독이셨잖아요. 제일 고민하셨던 게 뭐가요?

이국호 일단은 합이 되게끔 만드는 게 중요했죠. 해도 해도 안 되면 캐릭터를 바꾸는 건데, 최대한 양상들의 수준차이가 없게 만든다는 게 일차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을 쓰는 배우들의 상황에 맞게 차별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합을 완성시킬 때까지가 스트레스였어요. 이 작품을 하면서 다시 모든 액션 영화를 다 봤어요. 너무 힘들니까 어떤 한 장면은 가지고 와볼까라는 고민도 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수준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영화는 컷으로 찍어나가기 때문에 가능한데, 연극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민해서 장면을 만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해보면 제가 봐도 재미가 없으니까요. 모든 합이 완성되기 전까지 4개월 열흘 정도? 마지막 날까지 상황에 맞는 장면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호산 익살? 이것을 이야기하면, 이것 자체가 굉장한 줄타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의 없고, 장난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가볍다고 말하기도 하고, 정말 좋다고 말하기도 해요. 엇갈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진지해져야만 하는 게 있거든요. 이번 작품에서 만들어낸 액션이 그래도



배우 | 호산

진지하게, 장난을 치는 거니까 오히려 ‘어, 장난이 아닌데...’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같은데요. 만약에 그런 게 없이 장난으로만 일관했다면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대사가 많은 희곡, 그 다음의 것

극공작소 마방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대사다. 공연을 보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대사를 받아들이기에 버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혹은 이런 연극 형식에 박장대소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문은 그러한 대사들이 갖는 함축성이다. 연극의 대사는 어떤 사실이나 이야기를 드라마처럼 펼쳐내는 것 이상의 함의를 요구한다. 그것이 객관적인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희곡이 지닌 문학적 텍스트 안에서도 그것은 필연이기도 하다. 그래서 마방진의 작업은 늘 평행선을 달린다.

호산 대사가 많은 연극이라는 특징, 결국은 마방진 메소드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처음에 연극을 배울 때 대사를 분석하잖아요. 물론 저희의 메소드는 그 단계는 지나야해요. 그 단계를 지나야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 하는 것도 뭔가를 생각하면서 퓌들이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생각하는 바대로, 숨은 알아서 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야기라는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명행 원래대로 한다면, 이 술자리를 한 4시간 가져야 해요.(웃음)

호산 그게 관객들도 마찬가지로요. 단 그것을 발성과 에너지를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하죠. 물론 그것을 관객들이 다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있는 지금 상황, 그 힘을 받아들여서 보는 게 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다 CF잖아요. 스포츠만 봐도 알아서 앞뒤를 연결 할 수 있어요. 그 스포츠를 일일이 다 열거해서 이해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영규 그게 어떻게 보면 관객을 배려하는 게 아닌 것 같지만,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 메소드를 이해하고 의심이 없어지기까지 3년 걸렸어요. 그 시작이 <마리화나>였고, <강철왕>, <팔인> 다시 <강철왕>, <들소의 달> 하면서 자연스럽게 체화된 게 쌓인거죠. 우리 연극을 보는 사람들은 그게 위험할 수 있다고도 말하는데, 현재 우리는 대사에서 정서를 표현한다기보다도 그 대사 안에 있는 힘을 믿고 가는 거거든요. 일정부분 대사는 표현 양식을 뿐이다, 그런 것으로 접근을 많이 했어요.

이명행 저는 관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우리 작업이 잘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규정된 시각,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평가하는지도 조금 아쉽지만, 일면 이런 작업이 오히려 연극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배우 | 이국호

<칼로막베스> 비화? 그런 에피소드!

6개월의 연습기간, 극단에서 한 작품을 만들기까지 최대한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한 달에서 두 달 안팎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녹록치 않은 시간이다. 칼싸움을 하고 몸을 많이 써야 하는 과정에서 뼈가 부러지고, 인대가 늘어나는 등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된 배우들이 한 둘이 아니다.

결국 맥더프는 갈비뼈가 부러져 한 팔을 묶고 공연을 했어야 할 정도였으니. 공연을 보러간 날 고선웅 연출이 던진 한마디도 이와 같다. “이 작품은 배우들은 비난받으면 안 돼...” 그렇게 오랜 준비기간을 거친 <칼로막베스> 역시 좋은 것만 가진 않았을 터, 정말 힘들고 짜증났던 순간에 대해 막말해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건넸다.

호산 정말 짜증나고 힘들었던 것? 너무더 얘기해봐

조영규 짜증났던 거?

호산 어, 나 말고... 하하하.

조영규 사실 저는 몸 쓰고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최윤우 아, 네... 약간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하하하

조영규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좋아졌다, 좋아졌다 하지만 저를 보는 연출의 눈빛이 안타까움을 발산하고 있고...

이명행 꼬리뼈도 다쳤잖아.

조영규 아, 그거, 사실 그건 연습하면서 다친 건 아니고요. 술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씻고 싶더라고요. 샤워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세면대에 발을 올려놓고 씻다가 그래도 뒤로 넘어져서, 꼬리뼈를 다쳤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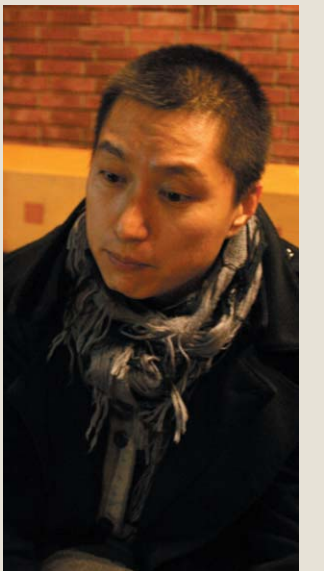
호산 정말 어이없어. 하하하.

조영규 그렇지, 어이없지.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이 이상하더라고요. 진찰을 하고 의사가 돈을 받는 병원이 있어요.(웃음) 근데 사람은 정말 많아요. 어르신도 많고, 병원 다녀오고나서 연출님이 형님들 모르게 소고기를 사주시고... 하하하

최윤우 이번 작품에 레이디 맥베스 이야기도 많았던 것 같아요. 여자 역할을 남자가 한 건 딱 하나였잖아요.

이명행 사실, 극단에서 저는 배운 게 많아요. 연극의 호흡이랄까, 무대 위에서 여유를 갖고 호흡을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게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런 건 좋은 거고, 중간에 힘들었던 게 제가 여자 역할이고, 성별을 바꾼 거는 저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게 미래가 배경이니까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게이냐, 남잔데 남자랑 결혼한 거냐? 아니면 정말 여자냐? 여장 남자냐?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막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출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너는 너로 하는데... 하여튼 넌 아내야.” 하하하. 이게 뭐가? 그래서 중간에 안 풀린 게 있었죠. 나중에는 감이 오니까 그냥 믿을 거는 또 나 자신 밖에 없더라고요.(웃음)

호산 사실 제가 정말 많이 먹거든요. 극단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번 작품하면서 살이 안찌는 거예요. 왜 그러지, 생각하다가 공연 전후 체중을 달아보니까 2kg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 뭐, 살이 안 찰 수 밖에 없지... 하하하



배우 | 조영규



배우 | 이명행

글 · 사진 **최윤우** 기자(parodia@hanmail.net) & 공연사진 **극공작소 마방진** 제공